

녹색성장과 생활환경¹⁾

Green Growth and Living Environment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생활 실천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민관이 협력하는 녹색 거버넌스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정부 주도의 녹색생활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수준, 미시적 수준의 녹색생활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녹색생활의 실현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들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정부의 노력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 국민의 녹색생활의 실천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 부처들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 및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생활이지만, 주민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 셋째,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한 홍보, 넷째, 인센티브의 개발 등 새로운 정책수단과 녹색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녹색생활은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생활에서 실제로 활용해야 하는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에 정부, 기업, 국민이 동참하는 범국민 생활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 서론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그 영향이 매우 크고 심각하다는 점에서 인류의 생존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와 그에 따른 과급효과는 국제사회에서 최우선 국제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위기(새로운 무역장벽)이자 기회(새로운 시장 창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에너지·기후변화에의 대응전략이며, 선도형 성장전략을 위한 국가 패러다임으로서 중장기적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시장 창출을 추진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의미한다. 또한 녹색성장은 환경, 일자리창출, 기업경쟁력, 미래성장 동력 산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토개조와 생활혁명

1) 변용찬 외, 녹색성장과 생활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참조

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녹색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사회 환경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실천전략이며, 경제적으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에너지, 산업, 일자리 같은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국민의 삶의 근본을 녹색으로 바꿀 수 있는 생활의 녹색혁명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핵심 국정과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범정부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 및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대책 · 산업정책 · 환경대책 · 금융 · 세제정책 · 재난대책 등 각종 정부정책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 기후변화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되, 일반국민들이 저탄소사회 생활양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산업계도 기후변화대응을 녹색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인식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녹색성장과 녹색생활

녹색성장은 기존의 환경보호에 비해 더 넓은 개념이다.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화석에너지

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이 녹색성장이며, 더 나아가 환경오염을 막고 생태 다양성을 보존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분야까지도 녹색성장에 포함된다. 녹색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신 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제사회에의 기여라는 세 가지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생활 혁명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에 국민의 역할, 특히 소비의 변화는 아주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세제와 보조금을 통해서도 소비의 변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국민적인 공감대와 동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녹색생활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현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생활습관(life style)을 말한다. 녹색생활은 협의로는 자원 · 에너지의 낭비 및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며, 광의로는 자연친화적이며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녹색생활의 협의의 의미는 자원과 에너지의 과다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삶의 습관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녹색생활은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며,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새로운 신 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녹색 삶의 패턴(생활습관)은 녹색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이 동시에 육성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녹색생활은 녹색기술(산업) 성장의 밑

거름이 되고, 녹색산업은 다시 녹색생활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녹색성장을 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하겠다.

3. 녹색생활을 위한 각 주체의 노력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기업체들은 저탄소 사회의 구축을 위한 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녹색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들과 기업체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전략개발의 의무를 가진다.

1) 일반 시민

일반 시민들은 “친환경적 참여 (eco-participation)”, “친환경적 사고(eco-thinking)”, “친환경 공유(eco-sharing)”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인간은 자연 생태계의 일부분이라는 의식과 사회 공존을 창조하는 주된 행위자라는 의식을 기초로 한 저탄소 사회의 창조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공과 이러한 아이디어의 공유와 이에 관한 의사소통의 참여를 통해 녹색생활에 적극 참여하

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학습(eco-learning)”, “친환경 소비(eco-buying)”, “친환경적 이용(eco-use)”, “친환경 쓰레기 처리(eco-disposal)”의 실천도 강조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지구온난화 이슈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에 기반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녹색생활 관련 시민 인식조사²⁾를 한 결과 국민들의 상당수가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절약이나 친환경제품 구매,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탄소마일리지제도 등에 대한 참여는 약 96.8%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서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녹색생활 참여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대중교통이용(86.3%), 친환경제품구매(65%) 등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가정에서 주로 소비를 하는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상품의 구매에 관해서 더욱 많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에 비해 친환경 제품의 구매에 있어 보다 활발한 실천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자가용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

2) 본 조사는 녹색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천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일반 국민 1,014명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로서 설문지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용찬 외, 녹색성장과 생활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에 수록되어 있음.

용에 있어 실천이 다소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1. 녹색생활 관련 참여자 비율(성별)

(단위: %)

	남	여	전체
에너지 절약	89.3	91.5	90.4
친환경 제품 구매*	59.4	65.0	62.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96.6	96.5	96.5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증진	97.4	98.6	98.0
대중교통 이용***	67.8	86.3	77.2
나무 심고 가꾸기	33.2	28.4	30.8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36.4	20.3	28.2
탄소마일리지운동	3.6	2.7	3.2

주: N=1014, 카이검정 값 * p<.05; *** p<.0001
 자료: 변용찬 외, 녹색성장과 생활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국민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등 능동적인 저탄소·친환경 생활양식(life style)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나무심기, 자연보호 등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행동의 생활화 역시 필요하다.

2) 기업체

기업체들은 저탄소 지향적 제품의 개발에 매진하여야 하며, 저탄소 사회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야만 한다. 또한 기업들은 저탄소 사회의 창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저탄소 건축물과 같은 저탄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 활동이나 생산된 제품에 대한 환경 정보의 표시의무 등을 통해 소비자의 환경문제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부

정부는 녹색생활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지침 및 기준, 실천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2009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와 각 정부부처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확산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범국민 녹색

생활운동의 본격화, 녹색생활 인센티브제 강화, 실천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기본으로 하여 생활에 있어 실천지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여러 가지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에 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린스타트 운동, 에너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에너지 패밀리운동, 여성부를 중심으로 하는 위그린네트워크 운동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녹색인프라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 중에 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탄소마일리지제도, 자전거도로의 확충 등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가지 실천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생활 시민인식조사 결과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해서는 78.5%의 국민이, 그린에너지패밀리운동에 대해서는 82.4%의 국민이, 위그린 네트워크 운동에 대해서는 92.1%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민간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실천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 중인, 즉 녹색생활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범사회적 기후변화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신·재생에너지·청정연료 보급 및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4. 녹색생활을 위한 제언

국민의 대다수가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생활 실천의 확산은 필수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관이 협력하는 녹색 거버넌스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정부 주도의 녹색생활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수준, 미시적 수준의 녹색생활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녹색생활의 실현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들 간의 연계 부족으로 일관성 있는 녹색생활의 실현이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 좋은 식단제의 시행에서도 볼 수 있듯 각 부처는 나름의 접근을 하고 있고,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운동 역시 각 기관의 독자적인 움직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지 못한, 즉 비슷한 운동이 각기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행정비용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노력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탄소마일리지 제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고, 정부의 녹색생활실천운동 역시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 국민의 녹색생활의 실천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 부처들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 및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녹색생활은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녹색생활의 성공적인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부처들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생활이지만, 주민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장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생활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녹색생활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거 새마을운동 등의 경험들처럼 현재

시점에서도 이처럼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조직의 구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ME-FIRST”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 하여 녹색시민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상품 보급 및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을 표시하는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녹색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체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국민 실천운동은 민간주도로 하되,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모든 연령층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이나 청년층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한 홍보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녹색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현행 제도의 정착 및 이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홍보방안의 마련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초·중등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의 생활양식 변화 유도하는 등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방안

과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 리플렛 및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실천지침을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주민들은 실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실제 국민들은 스스로 에너지 절약, 쓰레기 절감, 대중교통의 이용 등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예를 들어 전기 절약은 현행 제도에 있어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월 대비, 전년도 동월 대비 전력사용량 등이 표시되고 있지만 “세제곱미터(m³)” 단위로 표현되어 이것이 얼마 만큼인지와 닿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처럼 어려운 표현이 아닌 전력 사용 절감으로 인해 감소된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표시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방법으로 이를 나타냄으로써 국민들에게 녹색생활의 실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 등에는 푸드 마일리지나 기타 제품에는 탄소발자국 등 탄소라벨링제도의 전면적인 확산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탄소마일리지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기업환경정보공시제도 등 제품뿐 아니라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저탄소 녹색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녹색GDP의 활용을 통해 녹색성장의

정책적 효과성을 측정을 통해 이를 보다 현실적이고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의 도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 GDP는 한 개인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가치로 환가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간환경의 변화 수준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녹색 GDP를 활용한다면 현재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활동들의 결과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녹색 GDP를 매년 추계한다면 현 정부의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관련 정책집행에 관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 가능할 것이고, 지표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녹색생활의 실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당수의 시민들이 녹색생활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대중교통의 이용 등은 도시 거주자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서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녹색생활의 실천의 강조와 더불어 녹색마을의 보급, 자전거 도로 확충, 보도 확충을 통한 걷고 싶은 도로 등 녹색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녹색생활은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생활에서 실제로 활용해야 하는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에 정부, 기업, 국민이 동참하는 범국민 생활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